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와 그 한계*

姜宗妊**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독자와 대여의 한계 |
| II.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색정적인 제목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영화 《음란서생》(2006)은 ‘음란소설 창작에 빠지게 된 조선시대 최고 명문가 사대부’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았던 시대에 관습을 깨고 자신을 던지는 주인공들의 용기 있는 도발은 짜릿한 흥분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그러나 그 영화가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떠한 파격적인 설정보다도 주인공이 추월색이라는 필명으로 지은 장안의 화제작 〈흑곡비사〉를 다투어 빌려 보던 많은 아녀자들의 군상 때문이었다. “읽고, 또 읽고, 돌려주지를 앓는다니까요, 글썬!”라는 영화 속 대사는 책을 대여해 볼 수 있었던 당시의 도서 유통 과정의 한 단면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영화를 보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칙한 작가와 소설을 탐독하는 독자가 되어 끝없는 상상 속에 빠져든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032)

** 동국대학교(경주)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오늘날 소설이 작품화되어 독자에게 읽힐 때까지는 출판사를 비롯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서점, 또는 도서관 등 다양한 유통 매체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과거 전통시기의 소설 유통은 이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근대 이전의 고소설들은 인쇄된 책으로만 제공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 더 많았고, 유통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였다. 그 가운데 근대 이전 조선의 세책(貰冊)이나 중국의 세서(稅書)와 같이 돈이나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주고 책을 빌려 보는 유통 형태가 있었다. 거기에서 책을 빌려 보았던 고객이 바로 독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설 대여의 유통 구조에 대한 연구는 곧 경제적 여건이나 여가, 識字의 능력 등 문화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독자 연구와 직결된다.

독자는 문화적 소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의 체계,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판단하는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가진 개인들이다. 이처럼 독자의 책읽기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사회적 행위¹⁾이므로 독자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작업이다.

책을 빌려보았던 독자와 관련된 것으로 조선시대 ‘세책’이라는 다소 생소한 대여 방식이 알려져 있다. 세책이란 세책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책 또는 행위이다. 세책집은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번성한, 책과 관련된 하나의 영업 형태로 유럽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8, 19세기에 번성했고, 같은 시기의 일본에서도 크게 성행했다.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18, 19세기에 서울에서도 세책집이 번성했었다는 사실에서 세책 연구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는 현상에 대한 연구이며, 그 연구의 범위는 문학만이 아니라 서민 문화 전반에 걸친 것임을 알 수 있다.²⁾ 하지만 조선 후기에 세책집이 있었고, 이 세책집은 조선 후기 서민층의 독서

1)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37~46쪽 참조.

2) 이윤석·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책고소설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3, 41쪽.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국문학 연구에서의 일반적인 상황이다.³⁾

조선시대 세책과 함께 논의되곤 하던 중국의 소설 대여 관련 연구는 더욱 더 미흡하다. 혹자는 중국에서 세책이라는 소설대여 형태를 증명하는 문헌이나 자료가 근대 이전에는 거의 없으며 현 단계에서 청말 이전의 세책에 관한 문헌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중국에는 소설 유통에 세책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⁴⁾고 주장한다. 또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늦게 세책업이 나타나며, 중국의 세책 업자들은 기한을 짧게 하고 적은 대여료를 받으며, 하루 종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겨우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었다⁵⁾는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은 주로 한국 문학 연구자나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세책 관련 의견들로 중국 측 자료에 대한 파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⁶⁾ 이에 대해 중국의 도서 대여에 대한

- 3) 이 외에 국문학계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세책자료로서 참고할 만한 것은 앞의 《세책고소설연구》 연구집을 비롯하여 정명기의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總量·刊所(刊記)·流通樣相을 중심으로〉(《고소설연구》 제12집, 2001),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소설에 나타난 세책장부를 중심으로〉(《고소설연구》 제16집, 2003)과 전상욱의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동양문고본 대출장부를 중심으로〉(《고소설연구》 제26집, 2008), 정병설의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진단학보》 제100집, 2005) 등을 들 수 있다.
- 4) 오오타니 모리시게, 〈朝鮮後期の 貫冊 再論〉, 《세책고소설연구》, 도서출판 혜안, 2003, 34쪽.
- 5)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186~188쪽 참조.
- 6) 중국의 전통시기 도서 유통이나 독자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홍상훈의 〈전통시기 강남지역에서 독서시장의 형성과 변천-소설 작품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中國文學》제41집, 2004), 박소현, 〈소설중독: 전통시기 중국과 한국의 여성 독자〉(《中國文學》 제53집, 2007), 최수경의 〈19세기 前期 중국 通俗小說 출판의 양상과 소설 독자에 관한 연구〉(《中國小說論叢》 제37집, 2012)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연구를 시도했었던 이민희도 중국의 세책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하며 “중국의 학자들도 세책에 대해 별반 알지도,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⁷⁾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자료를 검토하면서 필자는 중국 전통시기의 도서 유통 가운데 하나로 세서포(稅書鋪)라는 형식의 도서 대여점이 있었고, 전문적으로 도서를 운반하거나 빌려주는 선박인 서선(書船)이 존재하였으며, 화랑(貨郎)이라 불리던 방물과 함께 도서를 대여하러 다니는 상인들도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들은 바로 조선의 세책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중국에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설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통 시기의 소설 대여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소설 대여에 관해서 문학사나 소설사 등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을 보면 전통시대 중국의 실제 소설 대여 상황과 무관하게 대여 방식 자체가 문학사 담론의 중심 주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전통시대 중국의 소설 대여 방식인 세서⁹⁾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담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세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이제까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중국의 소설 대여에

7) 이민희, 《조선의 베스트셀러》, 프로네시스, 2011, 144쪽.

8) 세서포·서선·화랑 등과 같은 중국의 소설 대여에 관련된 한국에서의 연구는 물론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중국 측의 자료로는 石昌渝의 〈清代小說禁毀述略〉(《上海師範大學學報》第39輯, 2010), 潘建國的 〈明清時期通俗小說的讀者與傳播方式〉(《復旦學報》第1期, 2001)과 〈明清時的書肆〉(www.pubhistry.com, 2006/8/7), 程國賦, 《明代小說讀者與通俗小說刊刻之關係闡析》(《文藝研究》第7期, 2007), 孫文杰의 〈清代圖書流通傳播渠道論略〉(《圖書與情報》第6期, 2012) 등 다수가 있다.

9) 이제까지 연구되어 온 바에 의하면 도서 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稅書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세서는 책을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稅書鋪, 書船, 貨郎을 모두 포함하여 전통시대 중국의 도서대여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세서를 사용하기로 한다.

대한 보다 더 확대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시장과 유통 연구의 새로운 단초를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다음으로 그 실상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설 대여가 문학사 및 기타 연구사 등에서 전면으로 부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는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독자들의 문화의 단면이 내포되며, 이를 통해 독서 문화와 소설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없었던 소설 대여의 한계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중국의 소설 대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과제의 가능성을 마련하여 중국 소설 대여 문화의 실상을 복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II.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

한국과는 달리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은 작가소설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독자나 출판인의 반응이 어떨지 의식하지 않았고, 그것은 철저히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작품 창작이라는 의미이다.¹⁰⁾ 따라서 중국 소설의 연구 역시 대부분 작가나 작품 자체에 비중을 두고 진행된 경향이 있으며, 독자는 상대적으로 주요 담론의 대상에서 소외되곤 했다. 독자에 대한 언급은 주로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송대 이후 시민계층의 확대가 소설이나 희곡 같은 속문학을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는 정도로 언급되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 소설 연구에 있어 독자층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집단으로 간주되어왔다.

일반적으로 궁중을 비롯한 사회의 상류층에서는 높은 문자의 해득률과 경제적 여유로 출판된 책을 직접 구입해서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문자를 읽을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연이나 희곡 공연을 통해 작품을 수용하였고, 경제적으로 책을 살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은 친분

10)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2, 143쪽 참조.

을 이용해 책을 빌려 보기도 했었다. 특히 활자 인쇄가 본격화되고 소설, 희곡과 같은 민간 문예 작품의 출판과 유통이 성행한 명·청대에 이르면 출판업의 상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작품의 보급도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설의 여러 가지 유통 경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지적 활동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었을 대여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고, 게다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 출판업과 유통의 활기로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필사본의 유통이 적었고, 그러다 보니 대여업 역시 미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통시기 소설 대여와 관련된 몇 가지의 문헌 기록은 소설을 빌려보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청대 시인 諸聯은 《生涯百詠》 卷1의 《租書》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엇하러 책을 많이 사 모으겠는가,
《서유기》나 《수호전》도 책방의 서가에 있다네.”¹¹⁾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소설 대여 상황을 연구하는데 있어 이 시는 매우 직접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된다. 《서유기》나 《수호전》과 같은 작품들이 책방의 서가에 있으니 책을 살 필요가 없다는 시의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소설 대여점의 흥행을 실감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필요할 때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빌려 볼 만큼 대여점의 여건이 그리 녹록치는 않았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책의 대여라는 당시에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던 도서의 유통 방식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통시기 중국에는 轉借, 租賃으로 일컬어지던 대여 형태의 유통

11) “藏書何必多, 《西遊》·《水滸》架上鋪。” 潘建國, 〈明清時期通俗小說的讀者與傳播方式〉,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01, 第1期, 122쪽.

통이 있었다. 전자는 이미 구매한 책을 친한 친구끼리 서로 빌려 보는 것이며, 조임은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책방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모두는 명청 통속소설의 직접적인 독자들이며 이들이 책을 구매해서 읽는 독자들보다 훨씬 많았다¹²⁾는 견해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아무리 늦어도 청대 초기에 소설 대여업은 이미 매우 흥성해 있었는데 주로 두 가지의 영업 방식을 살펴 볼 수 있다.

① 刊刻된 책 목록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다.

清代 琴川居士는 《皇親奏議》 卷22에 康熙 26년(1687) 형과 급사중 劉楷가 “신이 한 두 번 책방의 출판된 도서 목록에서 대여 소설을 보았습니다. 150여 종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불경스러운 말로 되어 있거나, 음탕한 짓을 가르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한 두 곳의 작은 서점들도 마찬가지였으니, 나머지 다른 곳들은 어떻겠습니까?”라는 상소문을 실었다.¹³⁾

② 시장 점포에서 직접 벌여놓고 빌려준다.

乾隆3년(1738) 廣韻學政 王丕烈이 상소문에 음란한 소설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상소문에는 당시 어떤 자가 각종 소설을 사서 “공공연히 서거나 상자에 책을 잔뜩 쌓아 시장 점포에서 그것을 늘어놓고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그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¹⁴⁾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소설 대여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보인다. 그

12) 潘建國, 〈明清時期通俗小說的讀者與傳播方式〉,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01, 第1期, 121쪽.

13) “臣見一二書肆刊單出賃小說, 上列一百五十餘種, 多不經之語, 誨淫之書, 販賣于一二小店如此, 其餘尚不知幾何”(王利器 輯錄, 《元明清三代禁毀小說戲曲史料》, 上海古籍出版社, 1981, 24쪽.)

14) “乾隆3年, 廣韻學政王丕烈上奏請求禁毀淫詞小說, 在奏折中聲稱當時有人收買各種小說, ‘公然疊架盈箱, 列諸市肆, 租賃與人, 供其觀看.’”(王利器, 앞의 책, 42쪽.)

가운데에서도 대여 목록을 제공해 주는 서점에서 책을 빌려보는 경우가 더욱 일반적인 상황이었음은 책을 빌려주었던 서점, 즉 “세서포(稅書鋪)”의 존재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1. 세서포

소설 독본을 빌려주는 책방을 청대에는 “세서포”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서의 “稅”는 “대여료를 받는다(租費)”는 뜻이다. 자료가 부족하여 당시 통속소설의 대여비가 얼마였는지, 대여 수속은 어떠했는지, 세서포의 이윤은 얼마나 되었는지 등은 현재 자세히 고찰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속소설을 대여해 주던 책방에서 唱本도 같이 대여하였으므로 창본의 대여 상황을 고찰해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¹⁵⁾ 李家瑞의 《清代北京饅頭鋪租賃唱本的概況》이라는 연구에 근거해보면 청대 북경의 永隆齋, 永和齋, 興隆齋, 集雅齋, 隆福齋, 吉巧齋, 聚文齋, 鴻吉齋, 保安齋, 天順齋, 崔記, 福盛齋, 三美齋 등 가게에서는 창본 고사를 베껴쓰고 이를 대여자들에게 대여하는 업무도 함께 보고 있었으며, 또한 매우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창본의 표지에는 긴 문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예컨대 永隆齋 抄本 《福壽緣鼓詞》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우리 가게는 사대기서, 고사, 야사를 빌려줍니다. 하루에 한 번 바꾸고, 만약 반 달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말긴 돈을 책 값으로 충당합니다. 친구라고 해도 책을 찢는 사람은 남자는 도둑, 여자는 창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가게는 교도구 남쪽 길 동편에 있습니다.¹⁶⁾

15) 창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20~30쪽 정도의 편폭인데, 통속소설의 경우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편폭이 길다. 따라서 소설의 대여에 있어서 창본에 비해 대여 기간도 길고 대여료, 보증금 역시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 本齋出賃四大奇書, 古詞野史, 一日一換, 親友莫怪. 撕書者男盜女娼. 本鋪在交道口南路東便是. (李家瑞, 《清代北京饅頭鋪租賃唱本的概況》, 中華書局, 1957, 潘建國, 앞의 논문, 121쪽에서 재인용)

또 興隆齋 抄本 《大晉中興鼓詞》에는 다음과 같은 인장이 찍혀있다.

우리 가게는 鈔本 공안소설을 빌려줍니다. 하루에 한 번 바꾸고 반 달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말긴 돈으로 책값을 충당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날짜에 맞추어 벌금을 냅니다. 만일 빌려간 책으로 아이들에게 가지고 놀게 하거나, 책 표지를 찢거나, 책 본문을 찢거나, 종이를 찢어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낙서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바꾼다면 남자는 도둑, 여자는 창부입니다. 책을 훼손한 자들을 그렇게 욕해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¹⁷⁾

대여책의 종류, 대여방식, 대여인에 대한 경고성 발언 등을 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인용문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大晉中興鼓詞》에 찍혀있는 인장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임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빌려간 책을 찢거나 낙서를 하거나 글자를 바꾸는 등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도 이 문구를 통해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여책에 찍힌 인장의 내용 치고는 지나치게 경고성이 짙은 문구이다. 책을 훼손하는 자를 사회의 최하층인 도둑과 창부에 견준다는 것은 빌려간 독자들의 자존심과 윤리 의식에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것 같다. 그만큼 도서 대여업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고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책을 빌리는 수속은 먼저 점포에 보증금을 낸 뒤 한 권의 책을 가져와 하루 만에 다 보아야 하며 그 다음 날 다시 와서 두 번째 책으로 바꾸어 간다. 만일 가져간 지 반 달이 지나도 와서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찾을 수 없다고, 한 달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연체된 날짜에 따라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17) 本齋出賃公案, 言明一天一換, 如半月不換, 押賬作本, 一月不換, 按天加錢, 如有租去將書哄孩, 撕去書皮, 撕去書編, 撕紙使用, 胡寫, 胡畫, 胡改字者, 是男盜女娼, 妓女之子, 君子莫怪. (李家瑞, 《清代北京饅頭鋪租賃唱本的概況》, 中華書局, 1957, 潘建國, 앞의 논문, 121쪽에서 재인용)

도서의 분실을 막기 위해 설계한 보증금이라는 절차는 대여료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책정되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3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어쨌든 대여료보다 비싼 보증금을 감수하면서라도 대여가 필요했던 소설책은 아마도 공개적으로 출판이 허락되지 않아 구하기 힘든 금서 조처된 작품들이었을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와 같은 가설을 방증해 준다.

패관야사는 대부분 난잡하게 떠벌리고 怪力亂神을 말하고 있으니 민심과 풍속을 해롭게 함이 아주 심각하다.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소설들은 꼭 집에 두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책방에서 빌려 보니 마땅히 힘써 금지해야 한다. 이제부터 소설 책방을 열 수 없게 할 것이며, 위반하고 책방을 연 사람은 논죄한다.¹⁸⁾

그러니 시종 소설을 금지하기에 급급했던 명청 정부 입장에서 책 대여점은 매우 불편한 존재였을 것이다. 소설 대여를 통해 통속소설의 판본 전파 역시 촉진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서포에서의 소설 대여는 상당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시장에서 소설을 빌려주는 사람은 법률에 의거하면 “곤장 100대, 징역 3년(杖一白, 徒三年)”¹⁹⁾의 형벌에 처해졌다. 그러나 청대 소설 대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흥성하였고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2. 서점(書鋪)

刊刻, 판매 외에 민간이 경영하는 책방에는 소설을 빌려주는 업무도 있었다. 또 조직을 결성하거나 기획, 심지어 직접 통속소설을 편찬하기도 했

18) 至稗官野史, 大率侈談怪力亂神之事, 最爲人心風俗之害, 屢經降旨飾禁. 此等小說, 未必家有書, 多由坊肆租賃, 應行實力禁止. 嗣后不準開設小說房肆, 違者將開設房肆之人, 以違制論. (王利器, 앞의 책, 65쪽.)

19) 潘建國, 앞의 논문, 122쪽에서 재인용.

는데, 이러한 책방이 통속소설 유통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청대에 이르러 출판업의 발전으로 책값이 명대에 비해 저렴해 졌다 해도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들이나 선비들에게는 여전히 사치품이었다. 따라서 각지의 책 장사들은 서적을 판매함과 동시에 대여 업무도 동시에 하고 있었으며 대여를 하는 서적의 종류는 대부분 하층 시민들의 구미에 맞는 통속소설, 창본 및 고사 등이었다. 대여업이 성행하면서 독립해 나와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 개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명청 정부는 禁毀에 대한 예봉을 책방들에게 겨누어 “소설 책방을 열어서는 안되며 이것을 어기고 책방을 여는 사람은 논죄한다(不準開設小說房, 肆違者將開設房肆之人, 以違制論)”라고 한 것이다. 게다가 거의 모든 금지령에 “각 書鋪와 稅書鋪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 또 각 책방과 전적으로 음란소설을 대여해 주는 책방 및 외지에서 온 도서 매매상, 소주 성 안팎의 그림 가게, 골동품 가게 주인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준다(示仰各書鋪·稅書鋪人等知悉)”, “示仰各書坊肆, 并有一等專賃淫詞小說書鋪及外來書估, 蘇城內外畫鋪古董鋪人等知悉)”는 등 그들을 겨냥한 말들이 기재되어 있다.²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서의 판매 외에 서점에서의 대여 업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풍속과 민심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재와 감시를 받았던 것도 상술한 세서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3. 서선(書船)

李漁의 《與韓子蘧書》에서는 청나라 초기에 ‘書船’이라는 배가 있어 여기에다가 책을 싣고 각지에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²¹⁾ 서선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은 서선의 주된 기능은 주로 책을 매매

20) 潘建國, 〈明清時的書肆〉(www.pubhistory.com, 2006/8/7), 9쪽에서 재인용.

하는 데에 있었다고 한다. 즉 각지를 다니면서 책을 사거나 팔기 때문에 서선이 도착하는 날을 고대했다가 많은 양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선은 교통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시기에 도서 유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선의 상인은 장서가들에게 책을 전달해 주며 찾아주기도 했으며 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²²⁾ 서선의 도서 대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설령 정기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선이 존재하는 만큼은 대여의 유통방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4. 화랑(貨郎)

元代 王晔의 《桃花女》楔子에는 “내가 몇 송이 꽃을 수놓으려 하는데 쓸 바늘이 없구나. 너무 급한 마음에 보부상(화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구나(我待繡幾朵花兒, 可沒針使, 急切里等不得貨郎擔兒來買)”²³⁾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 明代 劉若愚의 《酌中志·內臣職掌紀略》에는 “어찌다 보부상이 오면 온갖 물건을 늘어놓았다(或貨郎擔則百物畢陳)”²⁴⁾라고 기재되어 있다. 화랑은 방물을 가지고 다니며 팔았던 일종의 보부상, 방물장사이다. 이들은 상품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뿐 아니라, 근현대 20세기 중반 무렵까지도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한 축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들이 손님을 끌려고 하는 소리가 원나라 원예의 한 가지가 되기까지 했으니²⁵⁾ 그 수요와 공급이 적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온갖 물건을 다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그 안에 서적이 포함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소비자의 요구로 인해 전문적으로 소설책을 취급하는

21) 오오타니 모리시게, 앞의 책, 34쪽.

22) 郭孟良, 《書船略說》, 《中國出版》, 2009, 第5輯, 99쪽.

23) <http://www.gushiwen.org>

24) 劉若愚, 《酌中志》卷16 〈內臣職掌紀略〉

25) 오오타니 모리시게, 앞의 책, 34쪽.

화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의 인용문은 1830년에 광둥 지역의 세책점에 대해 서술해 놓은 글이다.

“나는 자주 세책점에 대해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이 나라에 올 때까지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모든 집까지 藏書를 운반해 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중략) 그는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책 상자 두 개를 어깨에 올려놓은 대나무 양쪽 끝에 걸고 손에는 광고지를 든 채 거리마다 집집마다 순회하며 지인들에게 책을 전해 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모든 시간을 보내고,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는 대개 책들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적은 대가를 받았다. 책은 일반적으로 권수가 적었고 소수의 전집류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대여해 주던 책들은 주로 소설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저질의 것들도 있었다. (중략) 오늘 오후 내가 상관의 문 앞에서 만난 대여업자는 하인들과 공장의 하급 노무자에게 책을 빌려 주었는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책이 2천 권이 넘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300여 권만 갖고 있고 나머지 책들은 수많은 고객들의 손에 있다고 했다.²⁶⁾”

이민희는 이 인용문의 내용에서 중국의 세책업자들은 일본에서처럼 책을 가지고 집집마다 순회하며 대여하는 방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책업자들은 기한을 짧게 하고 적은 대여료를 받으며 하루 종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겨우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들이 주된 고객으로 삼았던 이들이 주로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속하던 노무자나 하인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일반 시민이나 부녀자 등이 세책의 주요 고객이었던 것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26)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연구》(역락, 2007), 186쪽에서 〈Walks about Canton〉, Chinese Repository: From may 1832 to Dec.1846. 4, 1835 August, p.190을 재인용.

27) 이민희, 앞의 책, 187~188쪽 참조.

이 자료는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유통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국 소설 대역업자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소설 대역 방식에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고, 이민희의 분석처럼 중국의 소설 대역업이 영세적인 영업방식에 주요 고객층이 노무자나 하인 등 사회의 최하층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뚜렷이 대비될 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세적인 소설 대역업자들도 물론 존재했지만, 이들의 영업 방식이 마치 중국의 소설 대역의 유통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소설 대역 방식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Ⅲ.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독자와 대역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역 방식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조선의 세책보다 형식이나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 훨씬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전통시기의 소설 유통과 관련한 연구에서 소설 대역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지 못했으며, 대역보다는 출판과 인쇄, 그리고 구매 등의 유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짙다. 특히 문학 작품이나 작가는 물론 당시의 시대상이나 문단의 상황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사에서 소외된 사회 문화적 이유가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중국 전통시기 소설을 포함한 서적의 유통, 소설 독자층과 그들의 장서 문화, 그리고 소설 대역 시 필요했던 보증금의 부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업 출판의 수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도서 출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업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宋代부터이다. 하지만 明·清代에 들어 활자 인쇄가 본격화되고 민간에서 희곡, 소설 등의 작품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출판과 유통의 수량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방마다 장서자들이 책을 수집하는 일 외에 직접 출판하는 일까지 하면서 출판업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다. 그러나 사실 명대 초기만 해도 인쇄술이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책은 흔한 물건이 아니었고 값도 비쌌다.²⁸⁾

그러나 명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상업경제의 발전 그리고 개성과 욕망의 추구를 긍정하는 心學의 등장으로 인해 시민 계층의 확대와 더불어 소설이나 희곡 등의 통속 문화나 출판이 성행하게 되었다. 명대 초기부터 소설의 금서 정책이 실시되고는 있었지만, 독자들의 읽고자 하는 욕구를 통제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었다. 계층을 불문하고 위로는 황제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장사치들에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三國演義》의 첫 번째 인쇄본이 정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상황²⁹⁾이었고, 명대 중엽 이후 대량으로 등장한 염정소설들도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았다. 특히 《金瓶梅》가 초유의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면서 출판업은 급격히 상업화의 길로 나아갔다.³⁰⁾

갓가지 淫詞소설이나 당시에는 금지되었던 기서들, 혹은 춘화를 사거나 보는 장면은 명청 소설 속에서도 아주 흔하게 묘사되었다. 그렇게 묘사된 독자층을 분석해 보면 가장 대중적인 장르였던 소설을 주로 읽었던 계층은 고위 관직자들이나 그들의 자제, 자본자, 상인 및 그 자녀, 독서를 주업으로 하는 서생과 수재, 가정교사, 예술가, 승려, 기녀, 심지어 강호의

28) 티모시 브룩 지음, 이정·강인환 옮김, 《쾌락의 혼돈: 중국명대의 상업과 문화》, 이산, 2005, 91~95쪽 참조.

29) 陳大康, 《通俗小說的歷史軌迹》, 湖南出版社, 1993, 68쪽.

30) 최용철, 〈중국의 역대 금서소설 연구〉, 《중국어문논총》제13권, 1997, 203쪽.

협사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소설을 읽는 것이 마치 전체 사회의 문화, 오락의 중요한 일부이었던 것 같았다.³¹⁾ 예컨대 錢大昕이 “예로부터 유·불·도 삼교가 있었는데 명대 이래로 하나의 종교가 더해졌으니 바로 소설이다. 소설연의 같은 책들은 일찍이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대부, 농부, 공인, 상인들 가운데 그것을 익히지 않는 사람들이 없으며 아이들, 부녀자, 글자를 모르는 자들까지도 모두 들어 직접 본 것 같이 구니 유·불·도와 비교해보면 그 교세가 더 크다고 하겠다(古有儒、釋、道三教，自明以來，又多一教曰小說。小說演義之書，未嘗自以爲教也，而士大夫、農、工、商、賈，無不習聞之，以至兒童婦女不識字者，亦皆聞而如見之，是其教較之儒、釋、道而更廣也)”³²⁾라고 언급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소설을 즐겨 보던 사람들의 계층이 다양했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소설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명대 후기에 들어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독자층에 유입되었다. 당시에 시민군중, 상인, 사인들이 모두 같이 통속 소설의 군체를 형성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층 민중의 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후기 독자 계층의 주체가 되었다.³³⁾ 물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모두 책을 사서 볼 수 있었을 리는 없다. 程國賦는 하층 독자들이 당연히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설 전파에 참여한 주된 형식은 설서를 듣거나 베껴 쓰기, 대여 등을 위주로 한 방식이었으며, 소설 간본을 직접 사서 본 독자는 그들 중에 많지 않았을 것³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비와 농부, 상인은 늘 뒤섞여 있었다(士與農商常相混)”³⁵⁾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신분을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 시기

31) 紀德君, 〈明清小說文本中的小說讀者論略〉, 《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010, 第4期, 1-2쪽 참조.

32) 錢大昕, 《潛研堂文集》卷17, 《雜著一·正俗》, 上海古籍出版社, 2009, 282쪽.

33) 程國賦, 〈明代小說讀者與通俗小說刊刻之關係闡析〉, 《文藝研究》第7期, 2007, 66쪽.

34) 程國賦, 앞의 논문, 65쪽.

였고, 소설 구독의 주요 계층에 대한 연구도 선비 계층과 하층 민중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여기서 더 깊이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지 중요한 것은 소설을 구독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³⁵⁾는 것이다.

아마도 출판, 인쇄 문화의 발전은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유통을 촉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소설의 인쇄와 출판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적 독서문화를 만들었던 한국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 더욱 구별된다. 출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과 중국 출판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상업 출판의 성행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출판의 성행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층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상업출판의 성행은 광범위한 서적의 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書種이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빈약한 경제력과 주자학 일변도의 사상적 흐름, 이에 따른 서적에 대한 한정된 수요는 官版 중심의 출판 시스템을 유지시켰고 이는 본격적인 상업출판의 출현을 지연시켰다. 더욱이 활자본이 官版 출판의 중심이 되면서 출판은 행정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출판 방식은 서적의 수요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던 조선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³⁷⁾ 전통시기 한국의 독자들은 새로운 소설을 구하기 위해 책 빌리기와 돌려 읽기, 베끼기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³⁸⁾ 그래서 세책이라는 도서 대여가 중요한 도서 유통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던 점은 중국과는 매우 상대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5) 歸有光, 〈白菴隱翁八十壽序〉, 《文淵閣四庫全書》集部《震川先生集》卷13.

36) 紀德君, 〈明清小說文本中的小說讀者論略〉, 《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010, 第4期, 4쪽.

37) 섭덕휘 지음, 박철상 옮김, 《書林淸話》, 푸른역사, 2011, 7쪽.

38) 박소현, 〈소설중독: 전통시기 중국과 한국의 여성 독자〉, 《中國文學》제53집, 2007, 123~126쪽 참조.

2. 藏書에 대한 동경

서원남은 중국의 장서 활동에 대한 문화적 배경으로 중국은 역대로 많은 학자들과 장서가들이 민족 문화의 보존과 고양이라는 공통된 정신에 기초하여 서적의 수집과 보관 및 편찬에 온 힘을 기울인 점, 또 중국인들은 역대로 독서를 사람됨의 근거로 삼아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점, 그리고 후손에게 재물보다 책을 남겨주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³⁹⁾ 예컨대 韓愈는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속에 詩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人之能爲人, 由腹有詩書)”⁴⁰⁾라고 하였고, 蘇軾은 “공자와 성인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책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自孔子聖人, 其學必始於觀書)”⁴¹⁾라고 하였다. 또 陸隴其는 “독서를 하지 않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不讀書之弊, 不可勝言)”⁴²⁾라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한 책들은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와 문집 등을 위주로 한 서적이거나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이 크게 환영받았던 명·청시기에 소설이 유가 경전과 같은 대우를 받았을지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馮夢龍은 《喻世明言》 叙文에서 “겁장이들도 용감해질 수 있고, 음탕한 자들도 정숙해질 수 있으며, 경박한 사람은 진중해질 수 있고, 완고하고 둔한 자들도 (긴장하여) 땀을 흘리게 된다. 비록 어려서부터 《孝經》이나 《論語》를 외운다 해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이처럼 빠르고 깊지는 못할 것이다.(怯者勇, 淫者貞, 薄者敦, 頑鈍者汗下. 雖小誦《孝經》、《論語》, 其感人未必如是之捷且深也)”⁴³⁾라고 하였다. 통속소설이 사람들

39) 서원남, 〈中國의 個人 藏書 文化에 對한 考察〉, 《韓中言語文化研究》 제17집, 2008, 461-463쪽 참조.

40) 韓愈, 〈符讀書城南〉, 《文淵閣四庫全書》 集部 《五百家注昌黎文集》 卷6.

41) 蘇軾, 〈李氏山房藏書記〉, 《文淵閣四庫全書》 集部 《東坡全集》 卷36.

42) 陸隴其, 〈畜德錄序〉, 《文淵閣四庫全書》 集部 《三魚堂文集》 卷8.

43) 馮夢龍, 《喻世明言(上)·叙》, 人民文學出版社, 1994, 1~2쪽.

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이 유가 경전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 주는 풍몽룡의 이러한 작가적 선언은 당시 문인 관료를 비롯한 지식 계층 뿐 아니라 통속소설에 환호하던 많은 서민 독자들의 공감을 일으켰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장서가들은 “서적을 간행함으로써 자손에게 혜택을 주거나 난세에 가문을 보존할 수 있고 수 백년 동안 판본이 전해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름을 받을 수 있다.(因刻書或子孫食其祿, 或亂世保其家, 或數百年板本遺傳, 令人景仰)”⁴⁴⁾라고 하여 장서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업으로 물려줄 만큼 藏書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는데 “집에 고금 통속소설을 소장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家藏古今通俗小說深富)”⁴⁵⁾는 풍몽룡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장서의 대상이 결코 經·史·子·集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시중에 유통되던 소설 간본의 종류는 다양했고 가격 역시 같지 않았다. 로버트 헤겔은 명청시기 소설의 독자층을 거론하면서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일반적인 도시 독자들, 그리고 여성으로 대표되는 몇몇 독자층 등 식자층을 지적하였고 그들이 주로 책을 빌렸다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책들을 사서 보았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⁴⁶⁾ 아주 적은 수의, 그리고 조금 더 싼 판본의 책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책의 대여보다는 구매가 매우 상식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다. 이처럼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독자가 소설을 구매해서 보았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활한 구

44) 葉德輝 撰, 紫石 點校, 《書林清話外二種》, (北京燕山出版社, 1999, 10쪽)을 이민희, 앞의 책, 171쪽에서 재인용.

45) 馮夢龍, 앞의 책, 2쪽.

46) 즉 부유한 도서 구매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책이라도 살 만한 여유가 있었고 책과 같이 필수품이 아닌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된 사람들은 조금 싼 판본들(아니면 가격에 상관없이 아주 적은 수의 책만)을 사려고 했을 것이다.(로버트 헤겔, 조관희 감역, 홍상훈 옮김, <명청 시기 소설의 틈새 시장>, 《中國小說研究會報》 제74호, 2008, 2~4쪽에서 재인용.)

매를 가능하게 했던 출판, 인쇄 문화의 발전과 통속 소설에 대한 열광,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원인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전통 문화 가운데에는 대단히 뿌리 깊은 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손의 번영과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집착이다. 그 궁극적 원인은 자신의 이름을 전하고 혈통을 지속시키려는 관념인데 장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장서가들의 욕망은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식의 藏書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청대의 유명한 장서가 중 하나인 李慈銘은 “이 책들이 언제 어디로 전해져 나중에 누구의 수중에 떨어질지 모를 것을 생각하면 일찌감치 흔적을 남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알게 하리라(每念此物流轉無常, 日後不悉落誰手. 雪泥鴻爪, 少留因緣, 亦使後世知我姓名)”라고 하였다.⁴⁷⁾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사회의 어떤 일부의 특정한 계층에서 비롯되고 지속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책에 대한 하나의 문화와 전통으로 이어져 심지어 장서가 불가능했던 대다수의 많은 중국인들에게조차도 보편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기 중국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보증금에 대한 부담

앞서 전통시기 중국에 소설 대여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로 상업적 출판의 성행과 전통적인 장서 문화의 영향을 들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소설 대여에 필수적으로 따르던 보증금에 대한 부담감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가설할 수 있다.

보증금과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창본 한 권의 대여료는 光緒 원년(1873)

47) 任繼愈 主編, 《中國藏書樓》, 遼寧人民出版社, 2000, 121~122쪽.

三美齋의 《天賜福》 표지에 적힌 것으로 미루어 9文이었다. 聚文齋 鈔本 《三國志鼓詞》의 표지에는 ‘책 한권을 잃어버리면 一吊(1,000文)(失書一本, 賠錢一吊)의 돈을 물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즉 창본 마다 낸 보증금 역시 一吊(1000文) 정도⁴⁸⁾였던 것이다. 이 기록은 책 한권을 빌리면서 대여료의 대략 100배가 넘는 보증금을 내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大清仁宗睿皇帝實錄》에는 ‘抄本’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예를 들어 “책을 베끼는 것은 십 쪽 마다 오 문씩이고 한 쪽은 사 백자를 기준으로 한다. (抄本每十頁五文, 每頁以四百字爲準)”⁴⁹⁾는 기록을 들 수 있다. 또한 葉德輝의《書林清話》에는 건륭 가경 연간의 책을 베끼는 비용에 대해 언급했는데, 예컨대 “지금 초서들은 100자 당 40~50문을 주어야 하고, 한 장에 비싸게는 100~200문을 주어야 한다. 이 책은 한 장에 꼭 440자이므로 초서의 가격으로 따진다면 대략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비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언급을 들 수 있다. 또한 명대 崇禎 년간에 “은관(銀串)은 1兩에 700文이 채 안 되었다”⁵⁰⁾는 기록이나 청대 嘉慶 17~18년의 은 값이 1냥에 900문 내외였다⁵¹⁾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을 참고해보면 저렴한 대여료에 비해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심한 경쟁으로 매달 수입이 1천 文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글자를 새기는 장인들의 수입을 고려해본다면 아무리 수익이 많지 않은 직종⁵²⁾의 월급이긴 하나 한 달 치에 달하는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쉽게

48) 潘建國, 〈明清時期通俗小說的讀者與傳播方式〉, 《復旦學報》, 2001 第1期, 121 쪽.

49) 潘建國, 〈明清時的書肆〉, 出版學術網(<http://www.pubhistory.com>), 2006.8.7. 9쪽.

50) 葉德輝, 앞의 책, 349쪽.

51) 葉德輝, 앞의 책, 318쪽.

52) 남송 무렵 글자를 새기는 장인들은 이 일을 통해 매달 평균 값싼 세 결례를 살 수 있을 정도인 3천에서 5천 文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원대에도 기껏 쌀 한 石을 살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명·청대에는 이 일에 종사하는 장인들의 수가 급격히 느는 바람에 경쟁이 심해져서 매달 수입이 1천 文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해졌던 것으로 보인다.(홍상훈, 〈전통시기 강남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물론 반납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 세책의 주 고객이었던 부녀자들이 집안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 저당 잡히고 가산을 기울게 하면서까지 책을 빌려보았다는 상황과 비교해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렇게 비싼 보증금을 내고 굳이 빌려볼 필요가 있었겠는지 의문이 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렇게 비싼 보증금을 내면서 보고자 한 책들은 아마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 빌려볼 수 있었던 소설 대여 절차는 저렴한 대여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대여를 해서 볼 수 있었던 독자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던 계층이었으며, 이러한 한계는 전통시기 중국의 도서 대여가 구매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IV. 나오며

전통시기 중국에서의 소설 유통에 대한 연구는 이제껏 출판과 인쇄, 그리고 구매 독자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설 유통의 또 하나의 방식이었던 대여, 즉 세서는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한국 고소설 연구에서 세책이라는 도서 대여 형태가 독립된 연구의 한 분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매우 상대적인 현상이다. 또한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업이 다른 나라보다 늦게 출현했고, 중국의 소설 대여업자들은 영세적인 영업을 했다는 등의 제한적인 인식과 오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전통시기의 소설 대여는 크게 개인적인 도서 대여인 轉借, 전문적인 대여점에서 이루어지는 租賃이라는 형식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역에서 독서시장의 형성과 변천-소설 작품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中國文學》제41집, 2004, 138쪽 참조)

稅書鋪라는 명칭의 소설 대여점, 전문적으로 도서를 운반하며 팔거나 빌려 주는 선박인 書船, 貨郎이라 불리던 책 보부상들도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과 달리 중국의 소설 대여가 부각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우선 출판과 인쇄의 활성화로 인한 상업적 출판 시장의 눈부신 발전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여라는 방식은 소설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없었으며 후세 연구도 따라서 소설의 출판이나 인쇄, 구매 등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 하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중국인들의 책에 대한 가치와 장서 문화에 대한 관념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계층에서도 되도록 책을 사서 보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출판 인쇄의 발전으로 다양한 품질과 가격의 판본이 존재했었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었다는 것이 소설 구매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소설을 대여하는데 필요한 선행적 절차인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대여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여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그 보다 몇 십 배 이상 달하는 보증금을 기꺼이 지불하며 대여해 보기엔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상의 여러 원인들로 인하여 전통시기 중국의 소설 대여 사업은 그 엄연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고 자료도 전반적이지 않다. 특히 중국의 소설 대여 상황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미흡하지만 중국 소설 대여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본고에서의 정리가 향후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References >

- Liu, Ruo-Yu, *ZhuoZhongZhi*(酌中志), Beijing: ZhongHuashuju, 1985.
- Qian, Da-Xin, *QianYanTangWenJi*(潛研堂文集),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2009.
- Feng, Meng-Long, *YuShiMingYan*(喻世明言), Beijing: Renminwenxue Chubanshe, 1994.
- Gui, You-Guang, *ZhenChuanXianshengJi*(震川先生集), *Wen Yuan Ge Si Ku Quan Shu*(文淵閣四庫全書)
- HanYu, edit by Wei, Zhong-ju, *WuBaiJiaZhuChangLiWenJi*(五百家注昌黎文集), *WenYuanGeSiKuQuanShu*(文淵閣四庫全書)
- Su, Shi, *DongPoQuanJi*(東坡全集), *WenYuanGeSiKuQuanShu*(文淵閣四庫全書)
- Lu, Long-Qi, *SanYuTang WenJi*(三魚堂文集), *WenYuanGeSiKuQuanShu*(文淵閣四庫全書)
- Wang, Li-Qi, *YuanMingQing*(元明清) *SanDai JinHui Xiaoshuo Xiqu ShiLiao* (*YuanMingQing three generations ban ruined historical fiction and drama*),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1981.
- Lee, Yoonsuk·Otani Morishige·Chung, Myungkee, *Rental Library Manuscript of Old Novels*, Seoul: HyeAn, 2003.
- Cho, Dong-Il, *Theory of Comparative Social history of the nove l2*, Seoul: Knowledge Industry, 2002.
- Chun, Jung-Huan, *Reading of modern*, Seoul: Blue History, 2003.
- Lee, Min-Hee,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book-brokers and distribution of old novels general books in a period of the 16th~19th centuries*, Seoul: Yeokrak, 2007.
- Lee, Min-Hee, *Best Sellers in Choson*, Seoul: Phronesis, 2011.

- Brook, Timothy, translated by Lee, Chung-Kang, In-Huang, *The confusions of pleasure : commerce and culture in Ming China*, Seoul: ISan, 2005.
- Xie, De-Hui, translated by Park, Chul-Sang, *ShuLinQingHua(書林清話)*, Seoul: Blue History, 2011.
- Ren, Ji-Yu , *Zhongguo Cangshulou(China library building)*, Shenyang: LiaoningRenmin Chubanshe, 2000.
- Chen, Da-Kang, *Tongsu Xiaoshuo de Lishi Guiji(Historical trajectory of popular fiction)*, Changsha: Hunan Chubanshe, 1993.
- Hong, Sang-Hun,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Book-market in Jiangnan江南 Area of Traditional China: On the Case of the Production and Trade of xiaoshuo小說 works”,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Vol. 41, 2004.
- Park, So-Hyun, “Obsessive Fiction Readers: Female Reading Audiences in Late Imperial China and Choson Korea”,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Vol. 53, 2007.
- Choi, Soo-Kyung, “The Study on Popular Novel Press and the Novel Reader in the First Half of the Ninth Century in China”, *The Journal of the Research of Chinese Novels*, Vol.37, 2012.
- Seo, Weon Nam, “Research on China's Personal Book Collection Culture”, *The Journal of Study on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and China*, Vol.17, 2008.
- Choi, Young-Chul, “Previous studies of China banned the novel”, *The Journal of the Research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13, 1997.
- Robert Hegel, translated by Hong, Sang-Hun, “Niche market novels of the Ming and Qing period”, *Newsletter for Research in Chinese Novels*, Vol. 74, 2008.

- Ji, De-Jun, "Ming Qing xiaoshuo wenben zhong de xiaoshuo duzhe Lunlüe" (Readers in novels of Ming and Qing period), *The Journal of Guangdong Technical Teachers College* (Social Sciences), Vol.4, 2010.
- Pan, Jian-Guo, "Ming Qing Shiqi Tongsu Xiaoshuo de duzhe yu chuanbo fangshi" (Ming and Qing period popular fiction readers and dissemination), *The Journal of Fudan University*, Vol.1, 2001.
- Pan, Jian-Guo, "Ming Qing Shi de Shusi" (Bookstore during Qing Ming period), www.pubhistory.com, 2006.8.7.
- Chung, Guo-Fu, "Mingdai Xiaoshuo duzhe yu Tongsu Xiaoshuo Kanke zhi Guanxi Chuanxi" (Ming Dynasty novel and popular fiction readers Transcription relationship Analyses), *Studies In Literature and Art*, Vol.7, 2007.
- Shi, Chang-Yu, "Qingdai Xiaoshuo Jinhui Shulüe" (Qing Dynasty destroyed ban on behalf of fiction), *The Journal of Shanghai Teachers College*, Vol. 39, 2010.
- Sun, Wen-Jie, "Qingdai Tushu Liutong Chuanbo Judao Lunlüe"(Qing Dynasty book circulation channels of communic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Vol. 6, 2012.
- Ning, Yao-Li, "Ming Qing Shi Shuchuan Kaolüe"(Research for Book boat of Ming Qing Dynasty), *Historical research*, 2012.12.
- Guo, Meng-Liang, "Shuchuan Lüeshuo: Ming Qing Jiangnan Tushu Maoyi de Gean Fenxi"(Book ship: Case Analysis Jiangnan book trade), *China Publishing*, Vol. 5, 2009.

< Abstract >

The manner of book lending called “稅書” in traditional era of china was not a popular way of book distribution. Eve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or novels seldom mentions about the book lending system. Therefore book lending may seem like it is not been studied enough and foreign scholars' view on Chinese novel lending doesn't quite differ from this misunderstandings. However, in traditional era of China, there was a personal book lending system called “轉借”, “租賃”, system in which people can get books from a professional book lending shops, and there even were franchise called “稅書鋪”. Moreover, there were “書船”, ships professionally carrying books to either lend or sell them and book peddlers called “貨郎” have been found in the records of history. Nevertheless the factors of book lending once prospered, there are social, cultural reasons that it did not receive attention. First, the dazzling development of commercial book market due to the pressing and printing relatively led lending business to be hidden. Second, it is the Chinese concept on the value and collecting books coming down from ancient times in China. Third, the proceeding procedure to borrow books: deposit may have acted as obstacle to development of book lending business. However the book lending in the traditional times of China did exist in many forms,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reasons above have diluted the existence and the social significance of book lending. The trial in the study of expected to be helpful in the later studies on comparison on circulation of books in China and Korea considering that the book lending in China has not been known to Korean literary world.

Key Words : 세서(book lending), 개인대여(personal book lending), 소설
대여(novel lending), 세서포(book lending shop), 서선(book
lending ship), 보부상(book peddler)